모노레일 타고 남원 관광한다

광한루원~천문대
주요 관광지 2.3㎞ 연결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

남원시가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등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원스톱으로 연결해 관람할 수 있는 모노레일 건립을 추진한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광한루원-춘향테마파크-함파우 유원지 등 2.3㎞를 관통하는 '남원광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모노레일의 개발여건 분석과 노선선정, 수요추정 등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한루원~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미 수 차례 보고회를 통해 모노레일 구동형식과 궤도양식의 장·단점 분석하고 국내 설치사례를 통한 남원시 도입방안과 모노레일 설치노선 종합검토, 수지분석, 관리 및 운영방안 등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했다.

최근에는 남원관광지 내 상가주민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시는 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뛰어난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모노레일 설치노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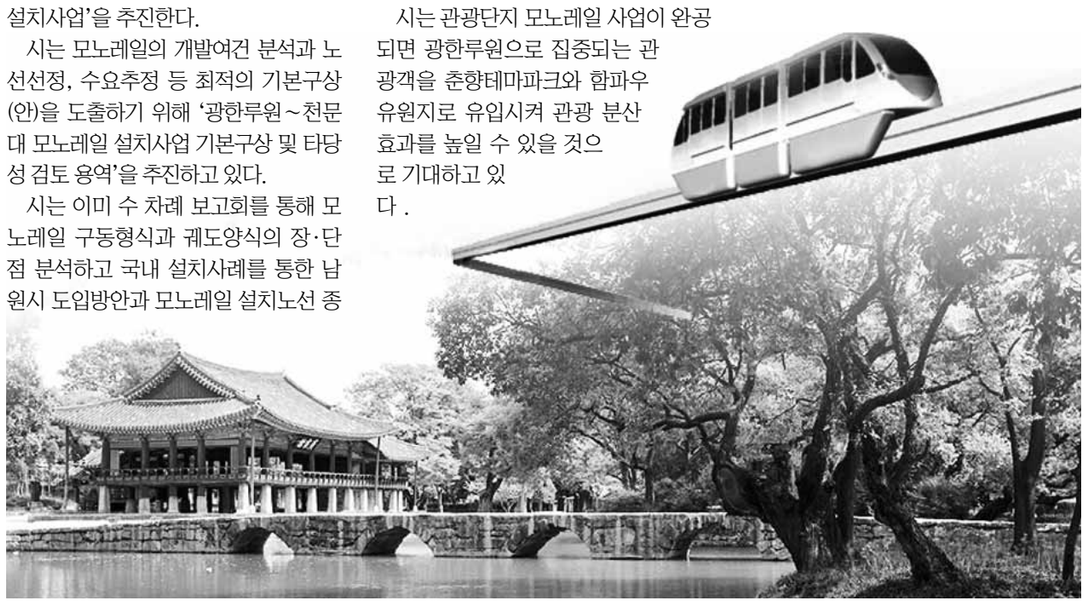
모노레일과 함께 짚트랙 등 체험시설과 주변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광단지 모노레일 사업이 완공되면 광한루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 유원지로 유입시켜 관광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객 재방문과 체류시간 연장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사업까지 진행된다면 남원은 명실공히 전국 산악열차관광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은 남원 관광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장성군의회 추경안 심사 거부…민생 현안 차질

郡 "주민편의시설 신축 등 정치적 이유로 외면…군민 피해 걱정"
군의회 "선심성 예산 우려…지방선거 이후 심사하기로 결정"

장성군의회가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장성군은 군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군정 사상 초유의 추경 심사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23~30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에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22일 임동섭 의회운영위원장이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외하자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히자 23일 오전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해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임시회 일정도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 28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장성군은 올해 1차 추경에 국토 및 지역개발 125억원, 환경보호 72억원, 농업 36억원, 보건복지 22억원 등 총 313억원의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장성군은 필요불급한 예산 수요가 많아 추경안 심사 무산의 피해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추경안을 살펴보면 북부보건지소 신축, 치매안심센터 신축,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 및 복지와 밀접한 편의시설 사업이 많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농업 분야 사업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새끼 우렁이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 농사철이 지나면 사업 시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무기계약근로 전환자의 인건비 증가분과 처우 개선비가 추경안에 포함돼 있는데 심사 거부로 당장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1~2월에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를 받고 3월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왔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향후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 심사 거부에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가 일제히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상 쌀전업농 장성군연합회 사무국장은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회가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임시회 개회 직전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군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군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회 관계자는 "추경안의 절반 이상이 공사비인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우려가 있어 지방선거 이후 심사하기로 한 것 뿐이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정남진장흥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영농지도사업 등 전 분야 상위권
표고버섯, 1백만불 수출탑 달성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강경일)이 농협중앙회가 평가하는 2017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농협으로 뽑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남진장흥농협은 전국 읍단위 2그룹 100여개 조합을 대상으로 평가한 신용카드부문 1위와 영농지도사업 분야에서 장려상,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클린뱅크농협으로 선정 되는 등 대부분 전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차지 최우수농협의 영예를 안았다.

정남진장흥농협은 2017년도 농축협 신용카드부문에서 1000점이 주어지는 배점보다 400점이 많은 1400점을 받아 141% 달성률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보험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등 성과를 냈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해 자산규모 2323억원과 자기자본 규모 247억원, 상호금융여신이 1856억원에 달하는 등 당기순이익에서도 내실있는 농협으로 인정받았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도 지역특산품인 표고버섯을 홍콩과 일본, 미국 등지에 직수출 1백만불 수출탑을 달성하기도 했다.

강경일 정남진장흥조합장은 "전국 1위라는 영예는 4300명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80여명의 임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의 결과가 이룬성과라며 내년에에는 조합원 5000만원 농가소득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청정도시 정읍 만들기 총력

악취 발생 시설 현장 점검 강화

정읍시가 악취 없는 청정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봄철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생활 악취 기동반을 통해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를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등 감시 체계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악취 발생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사 운영자 등 관련자 교육 등 악취 저감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목포대, 헬스케어 생활도자 명품화사업 수혜기업 공모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목포대 헬스케어 생활도자 명품화사업단에서 수혜기업을 공모한다

목포대가 전남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헬스케어(Health Care) 생활도자 명품화 사업'이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공모에 나선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3년 동안 지원받는 총 사업비 23억원 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시·군·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원 관련 산업의 전통적 요소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생활자기 업체 중 전국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무안·목포지역의 도자기 생산 기업체 및 강진 청자 생산업자에게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헬스케어 생활 도자기 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비과 재료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주게 된다.

생활도자 명품화 사업 제품.

이를 위해 27일 오후 2시 목포대 대외협력관 1층 이노카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접수는 3월말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예향 전남의 전통문화예술자원 가치 재창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목포시와 무안군, 강진군과도 협력해 지역 도자기 산업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석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은 헬스케어용 고기능성 도자제품 개발 및 명품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브랜드 도자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통융합 신도자 기술의 타 산업과의 연계 등으로 지역 도자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